

# 광주 경제발전 이끈 우수기업·기술인 선정

광주형기업 3곳·일자리우수 16곳  
광주명장 미용분야 이정례 대표  
기술장 김재호·정경복·장기홍씨  
경제발전 기여 중소기업인 5명도

광주시가 올 한 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우수 기업과 기술인들을 선정했다.

시는 1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형일자리기업 3개사, 일자리우수기업 16개사, 우수 중소기업인 5명, 광주명장 1명, 기술장 3명에 대한 ‘인증서 및 상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광주형일자리기업에는 사전 적격성 검토, 서류 심사, 현장 점검, 위원회 심사를 거쳐 한국알프스㈜, ㈜나눔테크, ㈜신성테크 3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2022년 예비선도기업으로 선정됐던 한국알프스㈜는 선도기업으로 인증하고 ㈜나눔테크와 ㈜신성테크는 신규예비선도기업으로 등록했다.

이로써 시는 2018년부터 총 35개 기업을 광주형일자리기업으로 선정했다.

광주형일자리기업은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4개 지



광주시는 16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명장·기술장 등 인증서 및 상패 수여식을 가졌다. 강기정 시장은 수상자들에게 인증서 및 상패를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했다. <광주시 제공>

표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온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함이다.

시는 광주형일자리기업의 정규직 종사자 수 규모에 따라 2천만원~1억원의 인증 지원금을 제공하고 2년간 13종의 행·재정적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일자리우수기업은 2년 이상 운영 중인 광주 지역 기업 중 한해 동안 고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 16개사가 선정됐다.

㈜부각마을, 정평시스템㈜, ㈜아토모스, ㈜지용금속, ㈜자용, ㈜무진기연, ㈜정상에이치씨,

에스마이스연구원㈜, ㈜유투, 예술유통협동조합, 나코스(유), ㈜카라멜라, ㈜선우, 레피소드(유), ㈜195에프앤비, ㈜현대하이텍 등이다.

일자리우수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 현판을 전달하고 경영안정자금한도 증액 및 추가 이자차액 보전, 신용보증재단·무역보험보증료 할인 확대, 수출진흥자금 우선·추가 지원, 구조고도화자금 추가 지원 등 15종의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기술력이 우수하고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강철원 ㈜유투 대표, 김춘애 ㈜승강 대표, 마상동 ㈜다원물산 대표, 김순

곤 ㈜천복금형 대표, 김범안 ㈜195에프앤비 대표 등 5명을 우수 중소기업인으로 선정했다.

우수 중소기업인들에게는 2년간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5억원) 및 이자차액 추가 보전, 구조고도화자금·수출진흥자금 융자액 추가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통상진흥사업 우대 지원 등 총 11종의 혜택을 부여한다.

광주명장으로는 미용 분야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지역 숙련기술 발전과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 이정례 ‘이정례 헤어명장’ 대표가 선정됐다. 시는 인증서·현판을 전달하고 5년간 기술장려금 1천만원을 분할 지급한다.

올해의 기술장에는 김재호 ㈜지아이애크 이사, 정경복 (유)에니체 이사, 장기홍 동진기업(유)이사 등 3명이 뽑혔다.

기술장은 광주 중소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신기술 개발·품질관리 활성화 실적이 우수하거나 생산성 향상·불량을 저감에 기여한 자를 선정한다.

강기정 시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술 개발·연구에 매진한 기업·기술인들 덕분에 광주가 풍성해졌다”며 “앞으로도 광주 산업을 넓고 깊게 만들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 이보배 전남농기원 연구사 ‘농업기술대상 연구대상’

‘유자 착즙’ 전용 품종 선발·보급  
업사이클링 기술 수출 확대 기여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이보배(사진) 농업연구사가 농촌진흥청 주관 2025년 농촌진흥사업 농업기술대상 평가에서 ‘연구대상’을 수상했다.

농업기술대상은 농업과학 기술개발 성과가



은데 과학·학술적 가치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농업·농촌 발전 기여도가 뛰어난 개발자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시상하는 권위 있는 포상으로 농업 연구자에게는 영예로운 상이다.

올해 농업기술대상 수상자는 교수를 포함해 총 3명이 선정됐으며 전국 약 2천600여명의 농

업연구사가 가운데 전남도 연구자가 연구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보배 연구사는 최근 유자 착즙액 수출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해 원료 안정적 확보를 위한 착즙 전용 유자 품종을 선발·보급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유자청 신선도 연장 기술 개발과 더불어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에 업사이클링 기술을 접목, 고부가가치 식품 및 향장품 소재화 기술을 개발·실용화함으로써 전남

유자 수출 효과 품목 확대에 이바지했다.

특히 이번 기술개발을 통해 ▲특허 3건 ▲기술이전 12건 ▲논문 6편 ▲제품 개발 6건 ▲사업화 2건 등 다양한 실용화 성과를 창출해 전남 특화 유자산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보배 연구사는 “이번 수상은 지역농업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해 온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값진 결과”라며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과 농산업 성장·발전을 이끌 수 있는 혁신적인 농업과학 기술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재정 기자



## 박기성 회장, 서아프리카 유학생에 겨울옷 선물

박기성(사진 왼쪽서 다섯 번째) 거성시너즈 회장이 사단법인 코코넛에 소속된 서아프리카 유학생들에게 겨울옷을 선물하며 온정을 나눴다.

박기성 회장은 16일 “(사)코코넛에 오랜 기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유학생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옷 선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온 심플리스 그라스(25·전남과학대 글로벌산업융합과)는 “아프리카는 여름만 있어 겨울옷이 없다. 한국에 와 두꺼운 옷을 구제습에서 구매하거나 얻어 입었

는데, 새 옷을 선물받아 기쁘다. 올겨울은 따뜻하겠다”며 감사인사를 했다.

최운정 코코넛 회장은 “지구촌을 하나로 보고 후원하는 박 회장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제2, 제3의 후원자들이 나와서 유학생들이 한국에 잘 적응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13명의 서아프리카 유학생들은 남부대, 전남과학대 등에 재학 중이며 한국에 과정을 거쳐 광주에 정착, 기술을 배워갈 예정이다.

/박희중 기자



## 광주 해원정사, 동구 이웃사랑 물품 기탁

광주 동구는 16일 “연말을 맞아 한국불교대종교 해원정사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성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 물품은 백미 710kg과 겨울용 이불 9채, 기저귀 9박스 등으로, 동구는 기탁받은 물품을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했다.

해원정사는 평소에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

웃을 살피며 나눔과 자비 실천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 기탁 역시 본격적인 겨울 추위를 앞두고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 관계자는 “모두가 힘든 시기임에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해원정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품은 꼭 필요한 곳에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영 기자

## 영광군, 道 나무심기 평가 ‘4년 연속’ 수상

영광군은 “최근 전남도가 실시한 ‘2025년도 나무심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군은 2022년 최우수상, 2023년 대상, 2024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까지 4년 연속 상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추진한 산림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심사는 ▲조성 ▲관리 ▲정책 참여 등 총 3개 분야 7개 항목에 대한 서류 심사를 통해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평가 결과 영광군은 3개 분야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각 읍·면의 특색을 살린 꽃동산 및 꽃길 조성 사업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또한 산림 방문 후 SNS 인증을 유도해 산림의 가치를 알리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나무 심고 가꾸기’ 분위기



를 확산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광군 관계자는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시대에 숲의 중요성을 공감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협력해 다양한 숲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 취임



문석환(67·사진) 광주교통공사 사장이 16일 취임했다.

문 사장은 이날 광주 서구 마락동 본사에서 취임식을 한 후 동구 용산 차량기지로 이동해 도시철도 운영 현장을 점검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개시했다.

문 사장은 용산차량기지 내 정비고와 검사고를 비롯한 주요 시설물을 점검하고 동절기 안전관리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며 강도 높은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또 현장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둘러보고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문 기반 현장 중심 경영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일류 공기업을 만들어 갈 것이다”며 “이동이 편리한 도시 광주,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교통공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사장은 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 전남지방도지수용위원회 위원, 광주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박관현기념재단 이사장, 5·18기념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기수희 기자

## 제45대 광주전남기자협회장

### 박진표 광주일보 기자 당선



제45대 광주전남기자협회장으로 박진표(52·사진) 광주일보 기자가 당선됐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16일 회장 단독 출마에 따른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박진표 후보가 77.96%(237표)의 득표율을 기록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휴대전화 문자투표로 이뤄졌으며, 선거인 총 496명 중 304명이 참여해 투표율 61.29%를 기록했다.

차기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다.

박진표 당선인은 “이번 찬반투표는 개인을 선택하는 절차를 넘어, 협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원들의 뜻이 담긴 과정이었다”며 “찬성과 반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의견을 협회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2000년 현 남도일보에 입사한 박 당선인은 2003년 광주일보로 옮겨 경제부장 등을 지냈다.

/최명진 기자



## 광주대·中 동영직업대

### 협력·교류 등 포괄협약

광주대학교는 “최근 중국 산둥성 동영직업대학교 교육 협력 및 학생 교류 등에 관한 포괄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동진 총장을 비롯한 광주대 방문단은 동영직업대학을 방문해 ▲교직원 교류 ▲재학생 단기간수 및 복수학위 교환학생 프로그램 ▲학술정보·자료·간행물 교류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개최 등에 협력하는 포괄협약을 맺었다.

협약이후 이어진 논의에서 양 기관장은 ▲3+1 프로그램 ▲석·박사 과정 진학 ▲교직원 및 학생 교류 ▲전공 연계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동영직업대학에는 현재 재학생 약 1만9천명이 재학 중이며 700여명의 교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후 광주대 방문단은 발해고등학교를 찾아 대학 설명회를 진행해 현지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박선욱 기자

## 부음

▲송귀례씨 별세, 박철수·익수(광주시양궁협회 상임부회장)·철민·신태·종호·정숙·순천·금단씨 모친상, 양의승·최기은·정옥씨 빙모상=발인 17일(수) 오전 10시50분 광주 광산구 수암장례식장 VIP실(2층). 062-959-4444.